

세계경제연구원 (IGE) 보도자료

2019. 6. 11.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전광우)은 사공 일 명예이사장의 “세계경제의 맥을 짚다”란 제하의 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책자는 사공일 명예이사장이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세계 최고 석학과 논평가,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WTO(세계무역기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수장,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 총재 등 24명과 세계 경제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등 주요국 경제의 현황과 최우선정책과제, 그리고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대담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사공일 명예이사장은 26차례에 걸쳐 이들과 개별적으로 장시간 의견 교환할 기회를 가졌다. 거시경제현안과 전망뿐 아니라, 창업과 기업가정신, 제 4차 산업혁명과 교육개혁, 그리고 노동시장과 노령화와 여성 문제, 부와 소득의 불평등과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위상과 전략 변화에 따른 기존 세계질서의 불안정 등의 주제를 종횡무진 드나드는 심도있는 대담을 가졌다.

이 책은 비단 경제·경영 전문가와 정책담당자, 기업가와 근로자 등 경제·산업·무역·금융·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과 경제·경영학도뿐 아니라, 경제와 기업경영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에게 흥미롭고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세계최고 경제석학과 전문가들도 같은 경제문제, 예를 들면, 물가안정,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 소득불균형, 금융규제, 미국, 중국과 일본, 그리고 EU경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과 견해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더욱이 경제 정책 대안의 선택을 두고 항상 고민해야 하는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선택의 유용한 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